

# 전남도, 청년농민 정착 위해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착수

인구감소 지역 중 곡성·강진 선정  
200여명 청년 유입·정착 기대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YO UNG(영농) 스마트단지’ 사업에 곡성군과 강진군을 선정,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한다.

영농 스마트단지는 청년농업인이 직면한 소득 창출과 정주 여건 등 영농과 농촌 정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월 임대료 1만 원의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및 청년농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각종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살기 좋은 창의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 지역(16개군) 중 8개군이 응모했으며,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곡성과 강진이 선정됐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빨갛게 익은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밀양시

곡성군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군 자체적으로 조성 중인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연계한 특색있는 스마트 단지·빌리지 구축 ▲창농동지 운영을 통한 청년농 공동체 활성화 등 영농 스마트단지를 농업특화 거점지역으

로 확장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영농 스마트단지와의 연계된 산·학·연 구성 ▲지역 내 스마트팜 법인 등 인프라를 통한 인큐베이팅과 판로 확보 ▲사업대상지 인근 빈집 제공과 청년농 리빙랩 추진 ▲임대형 팜 기간 만료 후 창농 스마트팜 보조

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곡성군과 강진군에는 스마트팜 임차 청년농과 교육생, 관계인구 등 200여 명의 청년이 유입되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살고 싶은 영농 스마트단지를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6년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180억 원을 투입, 영농 스마트단지 6곳을 조성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덕군

#### 효도수당, 30만원으로 상향

영덕군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속박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해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기로 했으며, 이에 올해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에 인상된 금액인 30만 원을 첫 지급하게 된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 여수시

####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수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의 주차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은 2월 8일 오전 8시부터 2월 13일 오전 8시까지다.

단,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오동도 공영주차장과 돌산공원 주차장 안전 문제로 임시 폐쇄한 동백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설 연휴 1일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전통시장과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고성군

#### ‘보리 생산장려금’ 신청 농가 모집

경남 고성군은 농한기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보리 생산장려금’을 2월부터 신청받는다. 보리 생산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계획량은 130ha로, 2023년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가축 사료용이나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 경남도

#### 지방공무원 1022명 선발

경남도가 올해에는 지방공무원 1022명을 선발한다. 선발시험은 오는 26일 의무 5급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직급·직렬별로 연간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명, 7급 36명, 8·9급 957명, 연구·지도사 26명이고, 도 직원이 53명, 시군 953명, 시군의회 16명으로, 이는 도와 시군별 퇴직 예상 인원과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대구시, 지방세 3.3兆 확보 ‘총력’

지난해 목표비 952억 증가 금액  
세수추계 모형 개발로 예측·관리  
고의적 체납자 추적 징수 등 계획

대구시는 올해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구·군과 함께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2024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운영을 위한 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열어 올해 세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조384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3조2888억원보다 952억원(2.9%) 증가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대구형 세수추계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정밀한 세수 예측과 세입을 관리하는 한편,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지방세 신고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선 8기 시정운영을 뒷받침할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자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재난 등으로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며 경제 회생을 돕는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고민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는 동(洞) 전담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과 구·군 민원실 내 세무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전남도 예산, 드론으로 27억 절감

홍보영상·시계열 영상 등 제작

드론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에 효과적임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용을 통해 연간 3억5000만원, 총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남도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고정날개 드론 2대와 회전날개 드론 4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전국체전 경기장 46곳의 영상을 촬영해 시설물 안내 등 경기장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나주혁신도시 등 신도시 변화 모습을 기록하는 시계열 영상을 제작, 영상 빅데이터도 구축했다.

올해도 전남도 실과소와 일선 시군의 요청에 따라 각종 토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섬, 해양쓰레기, 비교우위 자원 등 100여 곳에 대한 드론촬영을 진행해 최신 영상을



드론 촬영.

제공할 예정이다. 연륙·연도교 등 해상교량의 하부, 케이블 손상과 균열 등 사람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정밀 촬영도 실시한다. 교량 노후화 정도와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를 대상으로 3차원 입체모형 공간정보 시범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불이나 과수, 농경지, 양식장 등 풍수피해지역에 드론 영상을 촬영해 피해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서에 제공, 피해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 남해군, 목판인쇄문화 복원사업 본격화

고려대장경 판각지… 지역특화사업

고려대장경 판각지인 남해군에서 ‘목판인쇄 문화 복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경남도가 지역특화사업 연구 용역 대상으로 ‘남해군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사업 연구 용역 대상지 발굴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남해군을 비롯해 통영시(사량도 덕동마을 백일홍 경관 사업)과 함천군(운석충돌구 소득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지역특화사업 연구 용역 대상으로 선정된 남해군 고려대장경 목

판인쇄문화 복원 사업은 고려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됐다는 학술 연구를 토대로 추진된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군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남해군은 이미 지난해 ‘고려대장경 판각지의 현대적 재발견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관련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경남도의 연구 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고려대장경 문화거리 조성, 산다나무 자생지 복원, 화방사 사찰 문화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체류형 관광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완도군, 소외 도서 항로 선박운항 시작

고급 낚도, 금일 다량도에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고급 낚도, 금일 다량도를 대상으로 각각 선박 1척을 투입하여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으며, 여객선이 미 기항하는 도서에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도군에서는 고급 낚도와 다량도가 선정됐다.

이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완도군 낚도를 운항하는 선박 /완도군

군과 고급 낚도, 금일 다량도의 마을 공동체는 7개월간 협력하여 운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고급 낚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2회 선박운항을 시작했다.

금일 다량도는 2월 말에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다. 선박 운영 및 운항은 각 마을 공동체에서 맡는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